

社 說

산정호수 관광지 활성화 대책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이 최고 46.6%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2003년 9억2천855만16천500원에서 2004년도에는 7억4천37만5천300원으로 1년 사이에 1억8천818만1천200원이 감소했다. 또 2005년 들어서는 지난 4월의 경우 2003년도 대비 30.79%가 감소했고 3월에는 27.720%가 감소하는 등 관광객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산정호수에 13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분수대를 2004년 4월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광성수기인 4월에서 7월까지의 산정호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분수대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분수대 가동시간이 평일 매 2시간 단위 10분, 휴일 매 1시간 단위 10분 가동 등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이 많은 시간대에서 탄력적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분수대 설치사업 외에도 1억 5천만원이 투자된 산정호수 관광지 목교량 설치를 비롯해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산정호수 관광지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은 투자한 예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설상가상으로 산정호수 관광지는 상류에 위치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나오는 비산탄지로 산정호수가 오염된 것도 관광객의 감소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는 여론이다. 다행히 군부대는 탁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오염은 막았지만 한번 발길을 돌린 관광객들을 다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이제 포천시는 산정호수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승산없이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산

정호수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 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불러 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분수대 설치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포천시의 입장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추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여 수익발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포천시는 보다 구체적인 홍보대책은 물론 산정호수 관광지의 장점을 최대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성 관광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 부족 문제로 산정호수관광지내 동시 주차공간은 2천여대 정도, 휴일 입장 차량량은 2천500여대로 500여대 입장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포천시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해진다. 게다가 주차회전율이 과거 드라이브성 관광을 선호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보통 3시간 주기의 주차회전율은 5~7시간 주기로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포천시는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갈수록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드는 산정호수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으로 분수대를 설치하여 운영의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세심한 배려를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郷土원로초대석 ② 前 大韓老人會 抱川支會 副會長 李敬贊



이 경 찬 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부회장

“과거의 고통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씨 포천시민의 자랑

“7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당시 군내면 용정리 이장으로서 기와집 두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초가집이었던 마을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비롯한 각종 마을 발전을 위한 도로확장 등 사업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정신을 되살려야 앞으로 국가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부회장 이경찬(83·사진·포천시 신음동)은 오늘날 국가발전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 김화로 이사 와서 살던 중 6.25전쟁으로 29세의 나이로 1.4후퇴시 남한으로 내려온 이 용은 군대생활 5년을 마치고 제대후에 군내면 용정리에 정착하게 된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뒤로 한 채 결혼하여 4남매를 둔 이 용은 통일에 대해 “살아 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비관적 견

해를 밝혔다. 또 노인들의 의식에 대해 “무조건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을 공경하라고 주문해서는 안된다”며 “노인들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천에 대해 이 용은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 고는 있지만 의식수준은 변한 게 보이지 않는다”며 “이거적인 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정신을 앞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송우리에 탈북자들이 입주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 용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그들을 만나다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치레 한번 안하고 건강을 지켜 온 비결에 대해 이 용은 “모든 것을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하루 세끼 식사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에 정착하여 살면서 포천사람들의 장점은 어디가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인심이 최고라며 자기가 노력하면 하는 만큼 서로 협조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좀더 과거에 대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기성세대들은 일제강점과 2차대전, 6.25전쟁 등 세 차례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 온 과거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심히 살자”는 것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용에게서 일제강점의 일본의 아비함과 6.25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올 때의 슬픔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삶들이 교차되고 있어 보다 깊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경中 개교식 발전과 和合 도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



대경중학교 개교기념식 및 체육대회가 지난 3일 대경중학교 운동장에서 내빈 및 학생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의 무용 공연과 동남고 걸스카우트의 에어로빅, 동남고 보컬팀의 공연, 포천중고 관악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개교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경중학교는 ▶1998년 3월 18일 18학급 설립인가 ▶2005년 3월 1일 개교(1학년 3학급) 및 남충현 교장 취임 ▶2005년 6월 1일 1학급이 증설 현재 남학생 62명, 여학생 66명으로 4학급 128명의 학생이 있다. 또한 교직원인 교원 13명과 일반직 8명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남충현 교장은 기념사에서 “대경중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의 큰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 출발의 기쁨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개교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40여분 가량 진행됐다. 개교식 후 1시간 가량 진행된 식후 행사에서는 대경중학교 학생들이

포천고 명문고 육성위해 면암관 開館

22억 6천 6백만원 소요...144명 학생 수용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된 포천고등학교(교장 손광삼) 기숙사 ‘면암관’이 지난달 31일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 개관했다.

우수학생과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및 학력 증진을 통한 실력 향상을 위해 개관한 면암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며 학생 숙소 19실, 교사 숙소 2실, 도서실, 관리실, 식당, 체력단련실, 공동사위실, 세면실을 두고 있다. 또 1학년 6, 7, 8반이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2천674㎡(809평) 규모의 면암관은 모두 11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기숙사 건립을 위해 모두 22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주)다림이 시공했다.

면암관에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학생 102명이 입사해 생활하고 있으며 매일 12시간까지의 자율학습과, 지원학생에 한해 새벽 2시까지 자



포천고 기숙사인 면암관이 지난달 31일 지역사회의 큰 기대속에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은 개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가주도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손광삼 교장은 개관식에서 “기숙사 개관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학생들의 과제해결능력 향상과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사회의 큰 기대만큼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창의적 민주시민 성장 기대”

신봉초등학교 개교식

포천시 소속을 신봉초등학교 개교식이 지난 9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변진수 포천교육장, 김태훈 경기도교육위원, 김춘화 신봉초교 교장, 관내 각급 학교장과 기관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

개교식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3월 1일 개교한 신봉초등학교는 15학급에 32명의 교직원과 530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송우택지개발지구와 송우 3~4리



포천시 소속을 신봉초등학교 개교식이 지난 9일 신봉초 운동장에서 마련됐다. 동교동 지역 등을 통학구역으로 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박윤국 포천시장(왼쪽)이 고조흥 국회의원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하고 있다.

고조흥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당선축하패 전달 및 지역현안 등 설명

포천시는 지난달 31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조흥 포천·연천지역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주요 시정 및 현안사항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과 인회동 포천시법원장, 변진수 포천교육장, 최덕기 포천소방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고 의원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하고, 포천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담임인사에 나선 고 의원은 “앞으로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포천시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유치 ▶영북지방산업단지 공업지역 물량 배정 ▶국지도 56호선 및 문암-산정 간 도로 확·포장 ▶각종 수도관 규제 해소 ▶탄약보급 등 중설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고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고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을 수시로 파악해 분기별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적극적인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일동면, 고전음악 감상교실 참가자 모집

포천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고전음악 감상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전음악 감상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열리며, 독일 함부르크 문화예술행사 아카데미과정을 수료한 양은희 씨가 지도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선단동지부는 지난 3일 오후시 동교동 한 음식점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선단동지부 간담회

주민의 알권리 충족하는 신문제작에 동참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 선단동지부(지부장 김득근)는 지난 3일 오후7시 동교동 한 음식점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갖고 포천신문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사위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최효열 발행인과 김중현 조사위원장과 김득근 선단동지부장 및 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발행인 인사말, 조사위원장 인사말, 선단동지부장 인사말, 회사소개 및 위원소개, 식사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효열 발행인은 “신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선단동지부의 발전을 위해 조사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

국제일의 지역신문으로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포천신문이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비판기능 수행을 위해 조사위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득근 선단동지부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조사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선단동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이초현 총무도 선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청성체육공원에서 지난 6일 제50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제50회 현충일 추념행사

포천시 청성체육공원에서 지난 6일 제50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관·단체 인사와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궁수호자회 등 400여명이 참석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엄숙하게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Pocheon News, including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